

# 영적 재건과 축복을 전달한 학개

## -복음으로 여는 학개-

학개 1:1-6, 미태복음 6:33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오만가지 문제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까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레마를 발견하여 응답과 해답을 얻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세계복음화의 제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먼저 추수감사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후반부에는 오늘 본문인 학개서에 대해 나누겠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스도의 의미 속에 감사의 의미가 각 절기 속에 담겨져 있다. 구약시대의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나 맥추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기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좀 다르다. 11월 중순이면 계절도 안 맞는데 한국적으로는 추석이 추수감사절에 맞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어 연구를 해 보았다.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다, 과일을 주셨다’가 아니라 영적인 전통이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기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북미대륙(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이 청교도들을 두 단어로 부르는데 ‘필그림’이라고도 하고 ‘퓨리탄’이라고도 한다. ‘필그림’이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성지순례자’를 지칭했던 단어였다. 이분들은 과거에는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다.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 갔던 남은 자, 순례자, 미국까지 정복한 정복자의 응답을 받은 분들이었다. 필그림들은 언약적 순례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퓨리탄’이라는 단어는 ‘엄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청교도들은 엄격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193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금주법도 만들었지만 지금은 마약도 허용하는 미국이 되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엄격한’이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심해지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그건 다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대로 사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복음은 방종이나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허용주의는 절대 아니다.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아니다. 개혁주의의 뿌리는 칼빈신앙이다. 칼빈신앙에는 크게 경건주의로 하는 프랑스, 독일, 북유럽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경건주의자들이 있다. 네덜란드도 있다. 영국에는 두 분파가 있는데 남쪽 잉글랜드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청교도, 북쪽은 장로교다. 우리나라는 양쪽 모두에서 영향을 받았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선교사님들이 모두 오셨는데 21세기, 세계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편집, 설계, 디자인이 영세 전투터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 로마복음화도 30명으로 했고, 청교도들도 다 죽고 50명이 남았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금을 따라 온 몇 십만 명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소수의 복음주의,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미국을 축복하셨다. ‘퓨리탄’이라는 단어는 ‘purity’ 즉 맑음, 청결이라는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다. 또, 동사형으로는 ‘purify’ 즉 ‘깨끗이 하다, 정화하다, 정제하다’이다. 즉 ‘청교도’라는 단어는 이 ‘엄격한, 맑은, 청결’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이다. 그리고 맑음, 청결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맑은 창’이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그것이다. ‘교도’는 불인 것이고 ‘창’이다. 초특급신앙인 것이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을 찾아서 미지의 북미대륙으로 온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북미로 오게 된 이유는 영국의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 이어진 신앙적인 박해 때문이었다. 정경유착이 있었다. 이들이 성경적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으나 영국 성공회는 너무 섞여있었던 것이다. 로마 카톨릭과 복음이 섞여 있다.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폄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게 된다. 102명의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의 플리머스에서 1620년 8월 5일(지금 달력으로 8월 15일) 배 두 대, 스피드웰(Speedwell)호와 메이

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미 대륙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첫 출발 후, 배에 물이 새 다시 귀항하였다. 스피드웰에 물이 샌 것이다. 한 달 후인 1620년 9월 6일, 결국 메이플라워호만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하여 미국 중부지방 버지니아(Virginia)를 목적지로 삼고 재차 출발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출발했는데 배에 구멍이 나면 “정말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데 초급신앙이다. 믿음이 있어야 완성할 수 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중부지역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다. 이 때 남자 78명과 여자 24명 등 전체 102명이 출발했고 항해 도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탄생했다. 도착한 것이 102명이다. 그들은 11월 16일 현재의 플리머스(Plymouth)에 도착했다. 63일간 5,440km의 멀고도 위험한 항해 끝에 닳을 내렸던 것이다. 그들은 영국에서 출발했던 항구의 이름을 따라 그곳을 플리머스라 명명했다. 미국 동해안은 항상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남쪽 버지니아로 가려면 배는 북쪽 메사추세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러나 청교도 개척자들은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한추위, 질병과 식량부족, 들짐승들의 위협, 거할 집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결국 그 해(1620-1621) 겨울, 2~3개월 내에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운명을 달리했다. 복음과 신앙을 위해 왔는데 어떻게 죽음을 당할 수 있겠는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도 믿음을 지킨 것이다. 특히 1, 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갔다. 생존자는 50명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했다. 그러나 6~7명의 사람들이 빨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 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여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헌신했다.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기우어 가을에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됐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다.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렸다.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 중 최고우량품들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들은 기도 중에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었다. 그들은 철저한 주일성수를 지켰고, 십일조와 경건생활을 했다. 그들의 기도 속에서 성장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통해 한국도 복음을 받게 된 것이다.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는 첫 번째로 이렇게 귀한 청교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도 청교도들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결의를 담고 있는 것이다. 오전 1부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험실에 있는 대학원생에게 물어봤다. 연구소에서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니 대학원생들은 설거지만 한다고 했다. 실험 용기에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있으면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깨끗이 닦는다고 했다. 세상적인 것도 이런데 영적인 것은 더하다. 인간은 더럽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지만 보혈의 피로 정화될 수 있는 것이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항상 더러워지니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청교도의 믿음과 전통을 지키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오늘 본문인 학개서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성전건축은 중단된 상태인데 성전을 재건할 생각이 하지 않고 자기들의 집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문제, 미래, 나의 집, 자녀, 사업, 일이 다 중요하지만 결국 창세기 3장 ‘나’이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이나이다.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 증거가 감사이다. 어려운 일 있어도 죽음이 와도 문제가 와도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뜻이다. 여러분이 불만, 불평하는 것은 다 세상중심, 나 중심이다.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다 자기중심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관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선해야 하지 않고, 내 자존심중심, 돈중심, 내 행위를 바꾸라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나?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서 돌아키라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꾸짖음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항상 축복을 말씀하신다. 결국 ‘너에게 복을 주고 싶는데 내가 줄 것 못 주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영적인 재건을 우선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은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영혼이 잘 되면 미래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도 불안하지 않다.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과

